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신년부흥회

"믿음으로 새출발 합시다"

충현기도원, 1월 3일 밤부터 ~ 6일 밤까지

"믿음으로 새출발 합시다"라는 주제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부흥회가 1월 3일(월) 밤부터 6일(목) 밤까지 열린다. 이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을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과 교회를 바라보며 새해의 계획과 결심의 마음들을 분명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김창인 원로목사, 당회장 신성중 목사, 기도원 지도 유창두 목사가 강사로 기간중 매일 새벽 5시에 새벽기도회, 오전 10시 30분에 낮공부, 오후 8시에 밤집회로 모이는데

숙식을 하며 부흥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원 사무실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또한 일부 집회 참석자와 충현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를 운행한다. 버스 운행시간과 장소는 오전 9시~10시, 오후 6~7시 사이에 교회 뒤편에 광장(교회입구 주차장)에서,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에는 성남 모란시장 남쪽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에 분당 전하리교회 앞에서 각각 출발하게 된다.

여 전도사 부임



여 전도사가 새로 부임했다. 정양순(만 39세) 전도사는 총회신학원 여교역자 연수원을 졸업하고 평화의 교회, 제일성도교회에서 교육담당, 심방담당으로 시무했다. 현재 부군과 함께 관악구 신림2동에 살고 있다. 1994년도에는 18교구 담당 전도사로 일하게 됐다.

94년도 1차 성례식

7일 학습·세례식, 9일 성찬식

교회는 94년도 제1차 성례식을 하기로 하고 오는 7일 학습·세례식과 9일 성찬식을 갖기로 했다. 따라서 학습·세례·유아세례·입교 및 개종 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오늘(1월 26일)까지 교구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한 예비교육과 문답이 6일(목) 오후 7시에 교육관 307호에서 있게 되며, 학습·세례식도 7일(금) 오후 7시에 갈릴리움에서 갖는다.

한편 금년들어 처음으로 갖는 성찬식도 다음 주일(1월 9일) I, II, III, IV부 예배시 거행된다.



94년 교구 모임장소 변경

매 주일 모이는 교구별 모임장소가 변경됐다. 전체적으로 조정된 교구별 모임장소는 아래와 같다. 오늘부터 이 변경된 장소에 모이게 된다.

- 제 1 교구 본당(우측)
- 제 2 교구 갈릴리움
- 제 3 교구 교육관 212호
- 제 4 교구 임마누엘홀
- 제 5 교구 본당(중앙)
- 제 6 교구 핸드벨석
- 제 7 교구 봉사관2층(엘마옴)
- 제 8 교구 선교관 102호
- 제 9 교구 교육관 202호(새가정부설)
- 제 10교구 교육관 314호
- 제 11교구 교육관 414호
- 제 12교구 찬양대석
- 제 13교구 배다니홀
- 제 14교구 본당(좌측)
- 제 15교구 교육관 301호
- 제 16교구 교육관 407호
- 제 17교구 봉사관1층(가나홀)
- 제 18교구 합렐루야홀
- 제 19교구 교육관 307호
- 제 20교구 교육관 107호(사랑부설)
- 제 21교구 교육관 205호
- 제 22교구 밴델홀
- 제 23교구 봉사관 지하2층(마르다홀)

새가족위원회 총회 개최

2년차를 맞으며 새로운 마음으로

지난 해부터 교회학교 새가족부에서 위원회로 승격되어 운영되어 오던 새가족 위원회(위원장 최대원 장로) 총회가 지난 주 배다니홀에서 90여명의 교사 및 양육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전임 위원장이었던 강은원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1부 예배, 2부 총회 및 친구위원장 이취임 순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고, 총회 후에는 양육부와 행정부로 나누어 94년도 새가족 운영계획과 조직 및 지침을 하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금년도에 2년차를 맞이한 새가족 위원회는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전임교역자(지도 홍창민 목사, 부지도 구명선 전도사)를 두게 되었고,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을 교구와 협력하여 관리하고 양육하는데 전념하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하여 금년부터 새가족위원회는 산하에 양육부(부장 오정현 장로, 부감 김구형 집사, 박영업 권사)와 행정부(부장 최대원 장로, 부감 김영수 집사, 김경화 집사)로 나누어 각각 조직을 원비하고 독자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새가족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새가족들이 팔복으로 양육되어지고 이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공동의회 소집 공고

아래와 같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오니 등록 세례 교인은 전원 참석바랍니다.

· 일시 : 1994년 1월 2일(오늘) IV부 예배후

· 장소 : 본당

· 안건 : 1993년도 결산 및 1994년도 예산 심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당회장 신성중 목사

성탄절예배

지난 12월 25일(토) 성탄절을 맞아 오전 9시, 11시, 오후 7시에 성탄절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다. 매 시간마다 본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드린 예배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11부(11시) 예배에는 대통령 김영삼 장로 내외가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끝난 후 참석하신 교우들은 김영삼 장로와 손명순 권사를 따뜻하게 환영했다.

◆ 새해 메시지 ◆

좀더 장성하는 새해가 됩시다

신 성 중

〈목사, 당회장〉



희 망찬 1994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물질적 생활은 물론이고, 영적 생활에서도 보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나무의 성장원리를 살펴보면 위로부터 물을 받아야 하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성장하고, 서서히 자라며, 위를 향해서 자라고, 뿌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로 원리입니다. 1994년도에는 이렇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소리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의 뜻대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1994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성장한다는 말은 영적 지식이 증가된다는 말이고, 영적인 것을 더욱 기뻐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또 성장이란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진다는 말이며 경건한 생활에 힘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994년도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중요한 것은 유기적 공동체란 점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장로교가 따로 있고 감리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파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처럼 인간이 만든 장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이 아닌 한 다른 교회들과 하나가 될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성숙의 비결의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 아침에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의 상태로 오래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린 아이는 남의 돌봄이 필요하고 남에게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은지 오래되면서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미숙아들은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킵니다. 늘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다닙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2. 성장의 비결

첫째로 욕제를 죽여야 합니다.

욕제를 죽이는 구체적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내 욕적인 소욕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욕제의 소욕이 그냥 죽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욕제는 죽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한 사람은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다 헌신된 곳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공연히 시간낭비를 하지 않고 빨리 성장합니다.

성장한다는 말은
영적 지식이 증가된다는 말이고,
영적인 것을 더욱 기뻐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또 성장이란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진다는 말이며
경건한 생활에 힘쓴다는 뜻입니다.
영적 성숙의 비결의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나무에게 비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 10:17) 라고 하였습니다.

넷째로 에녹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면 얼굴 모습도 닮고 생활방식도 닮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닮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을 배우고 닮고,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

첫째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41절에 보면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재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격동이란 말은 제한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교만과 불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기도하기를 쉴 때 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스필존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여덟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욕에 속한 말-음담패설, 세상의 속된 말을 하는 것, 둘째는 불평과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것, 셋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넷째는 불신앙적 행위, 다섯째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여섯째는 교만과 우월감, 일곱째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 여덟째는 죄인줄 알면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조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4.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때의 결과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축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사도들의 기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 1:9-11)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 1:10-11)

둘째로 중생받은 사실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확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비참한 패배를 맛보지 않습니다.

아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해도 문제만 일으킵니다. 또 아이는 순진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맹수가 들끓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비참한 패배를 맛보지 않습니다.

넷째로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명분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천이백만의 성도를 가진 한국 교회가 불신 사회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 이 민족과 사회를 안고 포용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13-15)

새해에는 더욱 성장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장성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은 '가정의 해'인데 가정적으로 더욱 다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는 축복을 받아, 풍성히 나뉘는 성숙하고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우리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 새해를 맞으며

꿈을 안고 맞는 새해

우 기 전
(장로, 당회서기)

1994년은 우리 충현교회가 설립된지 41년을 맞는 해이다. 40년은 모세의 광야생활을 연상할 때 준비 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충현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도약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새해를 40년의 터 닦음 위에 충현의 힘찬 도약의 원년으로 맞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새해에도 동해의 검은 바다 위에 떠오르는 태양을 힘차게 솟구쳐 올리실 것이다. 그 기상으로 새해를 맞고 싶다. 그 기상으로 충현의 도약의 행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계속되며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 사회, 이 나라에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 많다. 또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전 1:8)의 말처럼 소멸되고 말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여야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새해 일이다.

우리의 반쪽 북한 사정은 어떠한가. 또 북방과 중동은 포기할 것인가? 우리가 북음을 들고 달려갈 곳은 너무나 많다. 우리의 이웃과 농어촌 도서 벽지가 우리의 전도 목표지요, 북한, 그 세력을 점점 확장시켜 가고 있는 이슬람, 기아와 난민으로 허덕이는 아프리카, 기독교의 맛을 잃고 있는 유럽 등은 우리의 선교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주님께사는 닦고 천한 신분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셨다. 우리도 마땅히 이와 같은 구제와 봉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터인데 우리 가슴은 너무 냉랭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새해에는 우리의 가슴을 달구자, 뜨겁게 달구자, 힘을 연자, 능력을 연자. 그래서 예배, 교육, 전도, 선교, 봉사(구제)를 통하여 충현 도약의 장을 열어 나가자.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

다.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기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서부터 작은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뜨겁게 임하실 것이다.

우리는 해마다 처럼 연도 말이 되어 부서를 조직하고 일꾼을 임명하고 사업을 계획하느라 바쁘게 지냈다. 이제 신년초에는 신년 부흥회와 교회일꾼 단기 수련회가 열릴 것이다. 이 때 우리는 조심할 일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교회운영에 타성이 붙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교회 목표를 충실히 감당하며 큰 도약을 해보자는 계획은 한낱 봄날의 꿈(一場春夢)이 되어 버릴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 목표를 설정하였고 성령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교회일꾼이 되었다고 믿을 때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각기 있는 자리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잠잠하며 최소한의 봉사로 땀을 절약한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의 칭찬을 못 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의 도약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 온 충현인은 꿈을 안고 새해를 맞읍시다. 우리 교회는 힘차게 도약하는 장한 모습을 바라봅시다. 우리 나라가 더욱 안정되고 더욱 발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봅시다.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봅시다. 찬란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봅시다.

□ 새해의 기도

당신의 뜻따라
보석같이 살겠습니다

김 운 섭
(집사, 제15교구)

어려움, 고통, 시련이 많았던 한 해 나라 안팎의 다사다난했던 '93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떨군 이 죄인 한 장의 결산보고 없이 눈물 흘리며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는 저물어도 새해의 태양은 떠오르고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94년도를 뒤흔칩니다.

혼돈과 공허의 묵은 해에 하나님께 못다 이룬 약속 용서를 빌며 빛으로 여시는 신년 염치없이 맞는 '94 당신 가슴속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제의 태양은 오늘 다시 뜨고 새해 새 아침 다짐하는 계획 부푼 희망과 소망 성취하게 하소서. 빛따라 쫓는 평화 신년의 새 아침 맞겠습니다.

밝아오는 '94 새해 새 아침 열렸습니다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는 주님 새 하늘 넓은 땅에 첫발 디딘 시작 찬란한 황금빛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온누리에 드높은 영광과 평화 십자가의 사랑 이어지는 종과 횡 당신을 닮으리, 당신을 닮으리 주님 영접하는 예비신부로 기다리겠습니다.

'94 태양은 어김없이 새해 새 아침 비취고 진리의 빛은 아침 뜨락에 내려퍼는 희망 한 해의 축복 대지위에 펼쳐지는 저 빛 '93년을 박차고 '94년을 달려보는 우리 다시 한 번 세우는 신년의 계획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 당신 뜻따라 보석같이 살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해 도약하는 충현교회 세계적인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올해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민족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충현 이 교회 이 나라 불잡아 주시고 한국과 세계 속의 충현교회 40년간 은총주시 평강의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 새해를 맞으며 ●

우리는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



하 대 선
(장로, 선교위원회 위원장)

계 초대교회로부터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였다는 엄연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서도 1994년에는 우리 충현교회의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가 "Mission Oriented(선교지향)" 일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와같은 복회지침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새해의 선교목표를 다음의 네 가지를 설정하고 그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1. 세계선교를 위한 전교회적 불 조성
2. 선교사 파송의 배가운동 전개
3. 선교현지의 유대 및 지원강화
4. 북한선교의 중흥을 위한 기반조성

아시다시피 선교는 영적전쟁이라고 합니다. 주님 제림의 날은 가까이 오는데 아직도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한 공황의 마음으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마귀사탄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 가슴속에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공허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동역자인지 살펴 보아야 겠습니

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전투요원이라면 우리는 후방에서 기도의 탄약과 정성의 보급품을 지원하는 후방요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태만으로 탄약과 보급이 끊어진다면 전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나가는 선교사' 못지 않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깨어있어 그들과 같이 싸워야 합니다. 기도로 그들과 함께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깨어있지 않다면 그들에게 언제 탄약을 공급할지, 보급품을 언제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학교도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이제 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원이거나 간사로 세워 주셨으니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1. 94년이 생동하는 선교의 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십시오
3. 온 성도가 선교위원으로서 '선교헌금' 1인 1매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온 교회 앞에 삼가 머리숙여 감사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선교위원회는 '94년을 생동하는 선교의 해로!'라는 표어를 높이 내걸고 "모든 성도중에 자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엡 3:8)라는 말씀따라 힘찬 새출발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에 뻗은 자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다만 나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과거 2천년에 걸친 교회는 우리에게

5분 인터뷰

시무장로를 은퇴하는 박관영 장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지난해 12월 26일 주일 저녁에 있었던 은퇴 및 근속자 포상에서 만 70세로 시무장로를 은퇴한 박관영 장로를 잠시 만나 은퇴의 변을 들어본다.

▶ 언제 장로 취임을 하셨나요?

▷ 1983년 11월 3일 제24대로 취임했습니다. 만 10년간 장로로 있었고 따라서 10년 근속과 함께 은퇴를 하게 되었지요.

▶ 장로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 느끼신 점은?

▷ 장로직을 받았지만 제 일신상의 이유로 충실하게 일을 하지 못해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병으로 인해, 또한 다른 이유로 몇번이나 사경을 헤매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뿐 아니라 교회에도 역사 하셔서 오늘날까지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의 빛을 족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기념촬영을 하면서 동기 장로님들이 '축하해야 할지, 설책해야 할지'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포함된 듯 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이제 남은 동안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후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보내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못한 것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기도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 하시고 싶은 말씀은?

▷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깊이 있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실 말없는 비판자와 가슴 뜨거운 후원자가 또 한 사람 생겼구나 생각하며, 일선에서 물러나 새로운 자신의 역할을 다짐하며 떠나는 장로님을 위해 관심과 기도를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



▲ 은퇴식에서의 박관영 장로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94년도 사역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소서.
2. 모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3.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을 성령과 믿음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맡은 바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4. 교회목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5. 94년도 내내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직원 사진 촬영 계속

미촬영자 속히 끝내기를

교회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펴낸 제직원 사진첩에 사용할 제직원 사진 촬영의 교구별 일정이 끝났다. 그러나 아직도 촬영하지 않은 제직원들을 위해 계속해서 촬영업무를 하고 있다. 아직 찍지 않은 제직원들은 빠른 시일내로 촬영에 임하기를 바라고 있다.

아직까지 미촬영자가 1천여명에 이르고 있어 사진첩 제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방에서는 미촬영자들이 하루 속히 촬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사, 집사, 원로권사, 권사, 명예직권사, 남여서리집사

• 촬영시간 :

주 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수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목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50분까지

• 촬영장소 : 선교관 407호(충현사진방)

• 대상 : 원로장로, 장로, 교역자, 원로집



은퇴 및 근속자포상/교회는 지난 주일(12월 26일) 저녁 찬양예배 후 만 70세가 되어 은퇴한 시무장로, 권사의 은퇴식과 동일 직분에서 장기 근속한 사람들에게 대한 포상식이 있었다. 은퇴자로 박관영 장로와 시무권사 19명, 포상자는 15년 근속포상이 30명, 10년 근속포상이 108명이었다.

선교사에게서 온 소식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준비한 만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동지 동혁이에게

전학공부하느라 여념이 없을텐데도 이곳까지 편지 보내주어 눈시울이 뜨겁도록 고맙네요. 벌써부터 낱달래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회를 가지고 선교사 후보자로 필요한 훈련까지 받고 있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 하실까요. 선교의 배편을 가지고 공군중도 짧은 모양이지요. 기도로 준비하는 동혁이의 꿈을 하나님께선 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준비한 만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생김은 요셉이 국무총리되기까지 꿈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부터 육체도 운동과 노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강건해야 되겠고 정신도 신앙과 독서로 강건하게 하고 특히 지역에 정해진다면 그곳

에 기후 풍토를 비롯한 지리, 역사, 풍습과 언어를 알고 익혀야 할은 물론 신앙도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강건하도록 하여 첫째로 동혁이 강건을 자랑할 수 있는 강하고 단단하게 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둘째로 육체는 영양 많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신앙도 하나님 말씀 잘 보고 듣고 생활에 잘 적용하여 늘 말씀을 제언자로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TV, 영화, 종이 않은 서적, 전자게임 등 유혹거리가 많으니 말씀으로 무장하여 대장부답게 강건하면 능히 물리칠 용기와 담력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이 기도요, 말씀이 무기였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니고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을, 우리 주위 환경을 안내로 참으면서 이기며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선 동혁이 부르신다

들어 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에 주신 재주대로, 익히고 닦은 능력대로 주님 안도 따라 명령을 수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힘써 나가길 원하면서 벨러서 기도하겠습니다. 키워 주시는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 기대대로 동혁이가 원하는 학교에 전학되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993. 11. 25

뉴질랜드에서 김형철 집사

